

##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원년’을 맞은 日本



‘신은 어디에 가도 있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나 어느 정보단말로도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유비쿼터스 사회의 도래가 추상에서 현실의 세계로 진입하는 느낌이다.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어둡게 새해를 시작하는 일본의 산업계에 다소 밝은 화제가 하나 주목을 끌고 있다. 정보통신을 관장하는 총무성이 2003년을 일본에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원년으로 선언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총무성은 25억엔 (2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련기술의 개발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 예산 자체는 크게 들리지 않지만 산업계의 반응은 적극적이다. 가장 큰 이유는 정보통신산업, 특히 디지털가전에서 일본의 기술입국의 중흥을 도모해 보겠다는 의지가 산업계에 충만해 있기 때문이다.

우선 두드러지는 활동이 디지털가전 및 모바일용의 OS인 TRON을 기반으로 하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다. 이 OS를 쓰는 정보기기는 다양한 IC태그의 정보를 읽을 수 있는 표준기기가 될 수 있다. 휴대전화는 물류의 관리수단이 될 수도 있고 약재나 식료품의 재고관리기기가 될 수도 있다. 소니가 비디오 이래 최고의 발명이라 자부하는 코쿤은 키워드만 등록하면 TV프로그램을 전자프로그램표에서 자동적으로 선택하여 녹화해 준다. 쉽게 말하면 가정내 오락서버다. 이에 비하여 토요타자동차가 개발하고 있는 G-Book은 유비쿼터스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차안의 서버라 할 수 있다. 인터넷, 휴대전화, GPS 기능 등을 모두 가진 고급 ITS기기이기 때문이다.

TRON을 연구해 온 도쿄대의 사카무라 교수 등은 NEC, 마츠시타 등의 기업과 함께 TRON 기기의 개발플랫폼인 T-엔진을 구축하며 일본이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의 강국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또한 IC태그용 ID를 발행, 관리하는 “유비쿼터스센터”를 일본뿐 아니라 해외 주요국에도 설립할 계획이다.



총무성의 비전은 업계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 같다.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로봇의 기능을 탐구하기 위한 ‘네트워크 로봇 기술조사연구회’를 결성하고 인터페이스, 표준화 등의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연구회에는 소니의 로봇 AIBO의 개발책임자 등 로봇전문가들이 모여 있다는 점에서 현실감을 주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2010년에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시장이 일본에서만 84조엔 (840조원)의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전망은 동년에 정보가전기기로 쓸 수 있는 각종 디지털정보기기가 1억5000만대 보급될 것이라는 업계의 예측에 바탕을 둔 것이다.

유비쿼터스는 당연히 국경을 모른다. 따라서 모바일, 브로드밴드, 마이크로컴퓨팅 등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의 요소기술에서 강점이 있는 한국의 벤처기업에게는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 \* 필자 소개



노승준씨는 MIT 경제학 박사로서 ㈜씨지케이스트레지 대표이사, 중국 인민은행 객원교수 등으로 활동 중이다.

